

지역 매 아 리

고창 다문화 시장가요제 성료

고창전통시장에서 지난 13일 다문화 가족, 고객, 상인이 함께 어우러진 다문화 시장가요제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11개 팀의 참가자들과 200여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전통 시장 내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참가자들은 고국을 떠나 타향길이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며 즐겨 부른 애창곡으로 무대를 채웠으며, 관객들은 노래에 화답하고 함께 어울리며 그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었다.

최만영 상인회장은 “고창전통시장을 찾은 고객들을 위해 다문화 시장가요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마련하여, 고객이 찾아오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토요문화 장터 등 불거리와 즐길거리를 풍성하게 마련해 늘 찾아오고 싶은 전통시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에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증설, 고객편의시설 건축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했고, 고창전통시장을 특성화시장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완료하고, 작년부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4대폭력 통합 예방교육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13일 청소년수련관 소극장에서 고창군 산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4대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통합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송정권(양성평등교육원 위촉강사)을 초청해 실시된 이날 교육은 최근 미투(Me too)가 확산됨에 따라 성(性)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인권보호 등 배려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감하는 문화(성인지 감수성)’를 주제로 4시간 동안 이뤄졌다.

특히,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과 본질적 해결방안에 근거하여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일상의 실천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뤄 배려하는 사회문화와 직장문화에 대한 조직원들의 관심을 높였다.

이길수 부군수는 “직장 내에서 무심코 행해지고 지나쳤던 행동이 타인에게 상처 주는 행동은 아니었는지,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스스로 점검 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기초로 개인과 조직원들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33년만에 제 이름 되찾다’

정읍시 섬진강수력발전소, ‘칠보수력발전소’로 명칭 변경

정읍시 칠보에 자리하고 있는 ‘칠보수력발전소’가 지난 1985년 3월부터 ‘섬진강수력발전소’로 불리어진 이후 33년 만에 원래의 이름을 찾게 됐다.

지난 13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1981년 10월 섬진강 수력발전소(운암발전소)가 건립된 이후 1945년 섬진강 수력발전소(칠보발전소)가 완공돼 1985년 2월까지 ‘섬진강수력발전소(칠보발전소)’로 불렸다.

그러던 중 운암발전소가 1985년 2월 폐쇄되면서 ‘섬진강수력발전소’로 불리게 됐다.

원래 이름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온 칠보면민과 출향인, 정읍시의회 관계자들은 “그간 지역성을 담은 원래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름을 불리어져 안타까웠는데, 이제라도 제 이름을 찾을 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 한다.”며 명칭 변경을 반겼다.

칠보수력발전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라는 역사성과 의미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일대 지역민들의 삶과 밀접한 시설양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의를 살리지 못한 채 ‘섬진강수력발전소’로 불리어지면서 원래 이름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읍시 칠보에 자리하고 있는 ‘칠보수력발전소’ 명칭 변경 기념식과 현판 제막식을 지난 11일 칠보수력발전소에서 거행했다.

관련해 지난해 8월부터 섬진강수력발전소 권순관 소장과 전정기 칠보면장 전정기, 칠보면변영회 이경연 회장 등이 중심이 돼 명칭 되찾기 면민운동을 주진해왔다.

여기에 칠보면민과 출향인들이 명칭변경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정읍시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제택하는 등 수많은 이들이 애정 어린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편 명칭 변경 기념식과 현판 제막식이 지난 11일 칠보수력발전소 현지에서 있었다.

이 지역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 이형구 본부장을 비롯한 전정기 칠보면장, 칠보면변영회 이경연 회장, 지역구 김승범, 김재호 시의원, 각 기관단체장 그리고 칠보수력발전소가 위치한 행단마을 주민들이 참석했다. 면과 발전소 관계자는 “칠보면민의 저력으로 칠보수력발전소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이 결실을 바탕으로 면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면민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보건소-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업무 협약

11월까지 상·하반기 각 1회 순회 건강 관련 교육 시행



정읍시보건소와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이현미)는 지난 12일 보건소 보건세미나실에서 아동·청소년 통합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서로 간 협력과 연계를 통해 건강증진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이다. 간호사와 치과위생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금연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운영반이 이달부터 11월까지 상·하반기 각 1회씩 순회 방문 건강 관련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기초체력과 체성분 검사 등을 비롯 청소년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일산화탄소 측정을 통한 금연 교육과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영양 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건강한 치아 관리를 위한 불소 도포와 바른 암치 실습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적극 나선다.

보건소는 “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한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정을의 이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며 갈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성인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54회 도서관주간
다채로운 문화 행사 마련

고창군이 제54회 도서관주간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 행사로 군민들에게 다가간다고 13일 밝혔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세상을 읽다’라는 도서관주간 공식표어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난 12일부터 시작되어 오는 18일까지 도서관과 독서관련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일반 군민들이 도서관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쉬운 체험행사 위주로 구성됐다.

13일에는 내 파부를 지키는 천연 수분크림’ 프로그램이 오후 7시부터 성호도서관에서 진행되며, 오는 17일 오후 7시부터는 성호도서관에서 나만의 에코백&미술책 갈피 만들기’가 진행되고, 같은 날 군립도서관에서는 ‘타일냄비밭침

만들기’가 진행된다.

아울러 오는 18일 오후 7시부터는 성호도서관에서 내가 만든 비밀책표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바쁜 생활 속에서 책이 주는 위안과 여러 가지 문화 체험 활동이 주는 여유를 갖고 사는 군민들에게 도서관과 책이 즐 수 있는 미음의 여유와 도서관주간은 물론 2018년 ‘책의 해’의 의미를 새로이 일깨워주는 시간이 되어줄 것”이라면서 “좀 더 다양한 행사로 군민들을 만나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도서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행사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군립도서관(063-560-8051)이나 성호도서관(063-560-8059)으로 하면 된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모범엽사 20명 구성

내일부터 11월 말까지

고창군이 아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유해야생동물을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피해방지단은 급격히 늘어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체수 조절을 통한 생태계 질서 유지를 위한 역할이 주어지며, 모범엽사 20명으로 구성됐다.

피해방지단 운영에 앞서 군은 총기류의 안전 사용과 구제활동 시 준수사항을 잘 이해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경찰,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운영

부안경찰서(서장 이동민)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선거상황을 유지 및 즉응 테세 확립을 위해 본격적인 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에 들어갔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부안사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중립적인 자세로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 수사를 진행하겠으며, 공명선거를 구현하려고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찰서 지능팀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했다.

특히 부안사는 선거범죄 신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는 등 군민들의 신고율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부안경찰서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112나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지능팀)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이옥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첨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KOREAN TRADITIONAL WINE
GANGSANMYEONGJU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칠맛을 느껴보세요.

오늘날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너머히 넓고 점성스레 빛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깊은 향을 한별 술로 빛았습니다. 부안의 벼사반도 청정해역의 해물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달도와 질이 아주 특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양한 수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
뽕주
Premium
Ohdi Wine

